

500년 이어진 외손봉사... “효행 가치 지속되길”

外孫奉祀

영광수성대장 이응중씨 가문
고창 화릉참봉 사후에 시작돼
영광유림·외후손들 제사 지내
효의식 퇴행 속 보존 가치 커

전주 이씨 사매당 가문의 외손봉사 500년을 기리는 기념비 건립식이 지난 23일 고창군 아산면 중월리 전주 최씨 참봉공 산소에서 개최됐다. 전주 이씨 가문 외후손들과 영광 유림 등 50여 명이 참여해 선외조의 제사를 모셨다.

24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외손봉사(外孫奉祀)란 직계비속이 없어 외손이 대신 제사를 받드는 걸 말한다. 영광군 묘량면 영양리 출신의 사매당(四梅堂) 이응중(李應鍾·1522-1605)은 임진왜란 당시 영광성을 지키 의병장이다. 그는 고창의 명문가 전주최씨 화릉참봉 최구연(崔九淵)의 딸과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던 화릉

참봉 사후에 외손봉사를 시작했다.

16세기 중엽에 시작된 외손봉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1950년 한국전쟁 중에도 이응중 슬하 자손들이 무려 70리(28km)나 떨어진 고창군 아산면까지 다니며 제사를 지냈다.

사매당 가문은 지난해 효행전통을 기념하고 지속하고자 기념사업회(회장 이금환)를 발족했다. 사업회 결성에 뜻을 모은 사매당의 외손들은 물론 방손(傍孫), 지역종친회, 사회지도층 인사 등 160여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다.

이날 사업회는 이들이 낸 기금 4000여 만원으로 묘비를 세우고, 영광 사매당 종가와 고창 묘소 입구에 외손들의 봉향 사적이 기록된 조형물을 설치했다. 남은 돈은 향후 봉향행사 진행에 쓰일 계획이다.

이금환 기념사업회장은 “500년간 이어진 외손봉사는 타 종중의 귀감이 됐다”며 “조선 후기 적장자(嫡長子) 봉사(奉祀)



전주 이씨 사매당 가문의 외손봉사 500년을 기리는 기념비 건립식이 지난 23일 고창군 아산면 중월리 전주 최씨 참봉공 산소에서 개최됐다. 외손봉사 기념사업회 제공

의 일반화로 제도·풍속이 변하고 오늘날 송조(崇祖) 전통 퇴색 추세에도 사매당 가문 후손들의 선외조(先外祖)를 향한 추모 열기가 사람들에게 송조와 보은의 정신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 종가 및 고창 묘소에 새겨진 사적 비문을 낭독한 이창현 기념사업회 간사는 “효도·효행의 가치가 퇴색하고 있는 요즘, 외후손들이 외할아버지의 제사를

500년간 계속 지속해 왔다는 점이 전국적으로 이례적”이라며 “유공승 영광 유림 대표가 축사에서 ‘귀한 행사인 만큼 무형문화재 형식으로 승화시켜 모든 이들에게 효행의 가치를 고취시켰으면 한다’고 했다. 전통의례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오래 지속된 외손봉사인 만큼, 문화 당국도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기림 기자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
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함평군이 유전체 분석 사업 추진 및 우량 암소 장려금 지급 등 한우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한우 개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량 암소 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량 암소 사육 농가를 비롯해 함평축협, 전국한우협회 함평군지부에서 참석해 한우 혈통 개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함평군은 작년 12월 말 대비 우량 암소가 16두 증가해 현재 109두이며 우량 암소 사육 농가도 4개 농가가 더 증가한 32개 농가에 이르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우량 혈통 개량 가속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우량 암소 구입비 지원 사업도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어르신 자장면 대접 봉사
담양군 월산면 지사협

담양 월산면이 최근 면사무소 광장에서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을 모시고 ‘사랑의 자장면 나눔행사’를 가져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다.

24일 담양군 월산면에 따르면 이번 나눔 활동은 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이응우)와 효사랑봉사단(회장 박영수), 금농반점(대표 조장욱), 대한문화재단연구원(원장 이영철), 월산면 이장단(대표 국중문), 생활지원사 등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직접 조리한 자장면과 만두를 어르신들에게 대접했으며, 울랄라시니어밴드(단장 조원주)의 위문공연으로 행복한 시간을 선물했다.

거동불편 어르신과 교통이 불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지원사들이 130가구에 직접 방문해 자장면을 배달하여 안부를 살피고, 무지개 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 50명에게도 맛있는 식사를 전달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최근 담양군 월산면이 면사무소 일원에서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담양군 제공

전남산 가루녹차, 아일랜드 수출 본격화

전남농기원, 1.8톤 수출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차(茶) 가공식품 생산 수출전문업체인 월드티(주)농업회사 법인을 통해 전남산 가루녹차 1.8톤을 아일랜드에 수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시범으로 가루녹차 200kg을 아일랜드에 첫 수출한 데 이어 품질을 인정받아 수출 본격계약이 이뤄지면서 추가 수출이 성사됐다.

2022년 기준 유럽의 차 시장은 69억

달러로 2027년 91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랜드는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차 소비량이 2.12kg으로 터기에 이어 두 번째 소비가 많은 나라로 최근 녹차와 허브 차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전남산 유기농 차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전남 차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와 제다장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차 제다장비를 지원하는 차 가공 지원동은 지난해 유기농식품 인증을 획득했다.

한·유럽연합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에 따라 유기농 표시해 수출할 수 있게 됐고 올해 3.2톤 전남산 가루녹차를 독일 등 유럽에 수출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박홍재 원장은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장성군, 내일까지 접수

장성군은 26일까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사업비 1억6500만원을 투입해 10대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대상은 장성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에 제작된 티어원(Tier-1) 이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다. 엔진 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조건에 적합한 기계로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어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차량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26일까지로 장성군 환경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장성=유봉현 기자

‘적기 영농 지원’ 나주시, 농촌일손 앞선 창구 운영

나주시가 영농철 농촌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기 인력 지원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6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촌 일손 돕기 앞선 창구’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선 창구에선 농가 수요를 파악한 후 영농 현장에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영농인력 확보를 위해 ‘사회공헌’ 책무가 있는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관공서, 유관기관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인력 지원은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 독거노

인, 장애농업인 등 취약 농가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최대의 배산지인 나주는 올해 저온 피해가 적어 배 인공수분, 열매숙기, 봉지 씌우기 작업 등에 예년보다 많은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농가에 실질적인 되도록 숙련된 농작업 인력 앞선에 노력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도시민 유류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 농가가 있다”면서 “상생과

연대의 지역 공동체 실현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촌 일손 돕기는 나주시 앞선 창구 외에도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배원에농업협동조합, 새나주시농어업회의소에서 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선 인력풀을 구성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를 중개수수료 없이 무료로 연결하고 있다.

농촌 일손 지원 신청은 ‘앞선 창구’(061-339-7357)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조대봉 기자

K-드론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영광군, 전문 인력 양성 입교

영광군은 지난 22일 ‘영광형 K-드론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드론 전문 인력 양성과정 입교식을 시작으로 6월4일까지 1일 8시간 6주(총 240시간) 진행되고, 2기 교육은 6월 중순부터 8주간 진행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취업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취업 취약계층, 중·장년층 구직자 등으로 이룬 및 안전교육, 소형드론 조정 및 실전 비행 교육, 기계 제조·정비·코딩 심화 교육 등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기회 결합·추락 시 신속한 정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 조립과 분해 교육으로 전문적인 드론 정비 인력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융·복합형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사전수매 ‘봄배추’ 출하
aT, 물가 안정 도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배추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정식기에 사전 수매 계약한 시설 하우스 재배 봄배추를 본격 출하한다.

24일 aT에 따르면 이번 봄배추 출하는 겨울배추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그간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비축 물량을 지속해서 방출해 왔다.

여기에 올봄 배추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자 모종 이식 시기에 충남 예산과 전남 나주 등 주산지 중심을 사전 수매계약을 통해 1000톤을 확보했다.

정부는 확보한 시설재배 봄배추를 노지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5월까지 출하 공백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안정과 김치 원료 부족 해소를 위해 일 평균 50톤 수준으로 5월 중순까지 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다.

혁신도시=김용희 기자